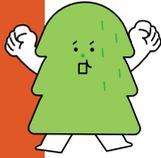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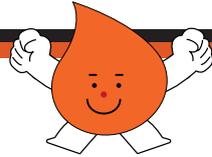
하나.



9월 7일 기후불평등에 맞선 투쟁과 행진에 함께 해요!
기후정의를 향한 우리의 요구를 거리에서
뜨겁게 외치고 노래하며, 희망을 조직합니다.

13:00~14:30 사전부스 / 서울도심
15:00~16:00 본집회 / 서울도심
16:00~ 행진과 마무리 집회 / 서울도심

둘.



907 기후정의행진 참여단체와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조직위
참여단체
가입하기



<https://bit.ly/907조직위>

추진이
가입하기



<https://bit.ly/907추진이>

셋.

907기후정의행진 채널을 구독하고,
SNS를 통해 널리 알려주세요.

- 홈페이지 www.action4climatejustice.kr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907climatejustice
- 페이스북 facebook.com/924climatejustice
- 텔레그램 공식채널 <https://t.me/CJM923>

SNS 해시태그 #907기후정의행진 #기후가아니라세상을바꾸자

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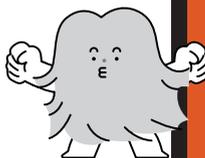
우리동네 거점공간에서 포스터, 리플렛, 가이드북,
액션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점공간
신청하기



bit.ly/907우리동네거점공간

거점공간
확인하기



8월 7일 시간·장소 대공개

2024. 9. 7.(토) 907
@서울도심

기후정의행진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올여름도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염과 폭우, 예측불허의 기상이변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과 그 토대는 쉽사리 무너지고 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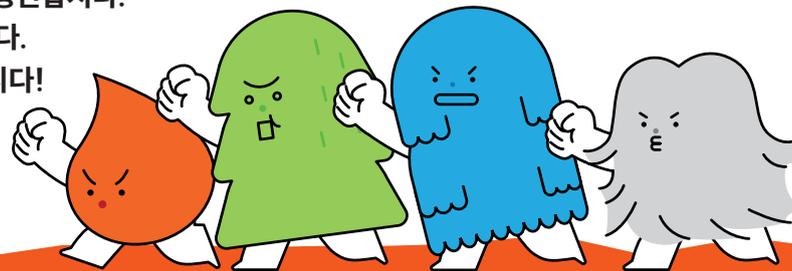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충분한 재난 안전 대책을 세우는 대신 온갖 토건 개발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핵산업을 지원하고 초고압송전탑을 늘리려 합니다. 대파 값이 걱정인 서민은 아랑곳없이 민간 자본에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 공존의 삶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지금의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생태계 파괴와 화석연료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생명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이들과 힘껏 외칠 것입니다.

이윤만 생각하는 사회를 넘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향해 함께 행진합니다. 9월 7일, 기후정의행진에 모입니다. 함께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십시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기후위기와 기후재난,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서 우리 모두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함께 행진합니다.

'불평등이 재난'인 사회입니다. 폭우에 집이 침수되어도 대책이 없는 빈곤층,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할 수 없는 노동자, 폭우와 태풍에 모든 것을 잃는 농민, 산업전환에 따른 대규모 해고위협, 치솟는 물가에 먹거리를 걱정하는 우리들. 우리 모두 재난의 당사자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자본에 책임을 물읍시다.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막고, 탈핵·탈화석연료·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해 함께 행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은 전력 수요를 늘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아 기후위기 대응을 늦춥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노동자는 끊임없이 소외되고 희생됩니다.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에 맞서는 곳곳의 저항과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힘이 서로 연결될 때, 현실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직 돈벌이를 위한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 개발 사업을 막고 생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함께 행진합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며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와 숲, 강과 습지, 바다를 마구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907기후정의행진은 가덕도와 새만금의 신공항, 흘러야 하는 강을 파괴하는 사대강사업 등에 맞서는 싸움이 서로 연결되고 증폭되는 장입니다.